

특집



윤재관
충남도지회장

미래를 향한 희망찬 낙농산업으로 가꾸자

낙농진흥법을 놓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는가?
이에 많은 낙농인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수
해야만 했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낙농진흥법을
가지고 지금도 양분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미진한 많은 부분을 서로가 합심하여 진정으로 생
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보완발전 시켜야 하는데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해야 하겠다.

오곡이 무루익는 풍요로운 가을
의 문턱에서 불철주야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관련업계에서
수고하는 여러분께 더불어 가을황
금 들판과 드높고 맑은 하늘의 여
유로움을 같이하고자 한다.

농업인으로써 수확의 기쁨이 있
는 이 계절에 웬지 허전하고 씩씩
한 마음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낙
농가족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한다.
희망찬 내일의 낙농산업을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올바르게 우유에 대한 가치를
알리자.

영국의 처칠경은 어린 아이에게
최대의 유산을 남기려거든 우유를
먹이라고 하였다. 우유가 단일식
품으로써 얼마나 완전한 가치있는
식품 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식품시장에서는 우유의 본
질에 대하여 훼손하고 있다. 시중
에서 각종 음료수들이 홍수를 이
루고 있는데 보통 500원씩하고 있
고 또한 물도 그렇다.

그런데 하물며 제 2의 식품인
우유를 음료수나 물보다 가격이
낮은데도 비싸다고들 한다. 생산
자, 소비자, 정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낙농을 이끈 지도자들이 실리와
명분에만 양분되었고, 유업체도
사익(私益)을 챙기기에 급급하여
우유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이
다. 우리 스스로가 다함께 노력하
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둘째, 낙농진흥법을 계속 발전, 보완
시켜야 한다.

그간 낙농진흥법을 놓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는가? 이에 많
은 낙농인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수 해야만 했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낙농진흥법을 가지고 지금도 양분
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미진한
많은 부분을 서로가 합심하여 진정
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제도
를 보완발전 시켜야 하는데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 미래를 향한 희망찬 낙농산업을

가꾸자.

정부정책, 사회구조의 변화등
모든 것이 좋은 조건이더라도 직접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우리의 마음
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려
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욕이 미래
의 낙농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소비자가 원하고 믿고 찾는 제
품을 생산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인
으로 적극 뒷받침하며 희망을 줄 때
결코 우리 낙농산업은 흔들림없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이번 기회가 획기적인
시발점이 되어 훗날에 남길 수 있
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
하여 현실보다 미래에 비전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